

자료제공: 2023. 4. 14.(금)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부서 :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7매

교통정책과장	이창석	2133-2210
교통기획팀장	유형석	2133-2212
담 당 자	박선영	2133-2213

※ 담당부서별 연락처(붙임) 참고

서울시,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특별대책 조속히 추진

- 김포골드라인 수요 분산대응...역사 관리 인력 투입·버스 증차 추진
- 개화 ~ 김 포 공 항 역 까 지 버스전용차로 설치...버스 정시성 확보
-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사업 적극 협력...김포~서울 '수륙양용버스' 새롭게 도입
- 제도 및 기반시설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 마련...혼잡도 조속개선
- 오세훈 시장, "신속한 혼잡도 완화 대책 추진...수도권 광역교통 편의 증진 최선"

서울시는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 특별대책을 조속히 추진한다. 서울시는 수도권 시민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빠른 수송증대를 위한 대중교통 지원부터 5호선 연장 및 수륙양용버스 도입 등 단계적 대책을 빠르게 시행한다.

서울시는 그간 교통 기반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김포시와 수도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에 더해 최근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 개선이 매우 시급한 만큼, ▲ 역사 혼잡도 관리 지원 ▲ 버스 증차 등 골드라인 수요 분산 ▲ 버스 중앙차로 신설 등 단기적·즉시 추진 가능 사항들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하철 연장 및 수륙양용버스 등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한다.

〈역사 혼잡 관리 인력 컷팅맨 투입〉

- 김포골드라인은 서울교통공사 자회사가 위탁운영하는 노선으로 역사 내 혼잡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컷팅맨’ 등 교통공사 자체 인력을 빠른 시일내 배치하여 역사내 이동동선 분리, 환승구간 안내 등 혼잡관리에 나선다.
- 시계외 운영철도이지만, 승객 대부분이 서울 출퇴근 진입 이용자이며 서울 5호선, 9호선 역사 혼잡도와도 연계되어 있는 만큼 수도권 시민 안전을 최우선 하기 위함이다.

〈 시내버스, 광역버스 증회 추진〉

-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위한 지원책으로 대체수단인 버스 추가 투입도 적극 추진한다. 시내버스, 광역버스 증회를 실시해 교통 편의를 높이고, 향후 수요에 따라 추가 증차도 고려하는 등 나선다.
- 경기도에서 김포골드라인과 동일한 구간을 운행하는 김포시 시내버스 70번 노선의 증회(8회) 요청을 즉시 수용하여, 출근 시간대 서울 시로 진입하는 버스의 배차간격이 최대 10분 단축되는 효과가 발생하도록 4.12.(수) 협조 완료하였으며, 추가 증차도 고려할 예정이다.

- 김포골드라인 대체노선 버스인 3000번은 6회, M6117번은 2회 증회를 시행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한강신도시~김포공항역 간 셔틀버스 운행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 3000번(강화터미널~장기본동행정복지센터~걸포북변역~개화역~마곡역~신촌역)
 - M6117번(양곡터미널~구래역~장기역~운양역~신촌역~서울역)

- 아울러,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21.4.) 이후 수도권 광역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광위·경기·인천의 광역버스 노선 신설, 증차 등 요청에 82.2% 동의하는 등 수도권 광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 버스전용차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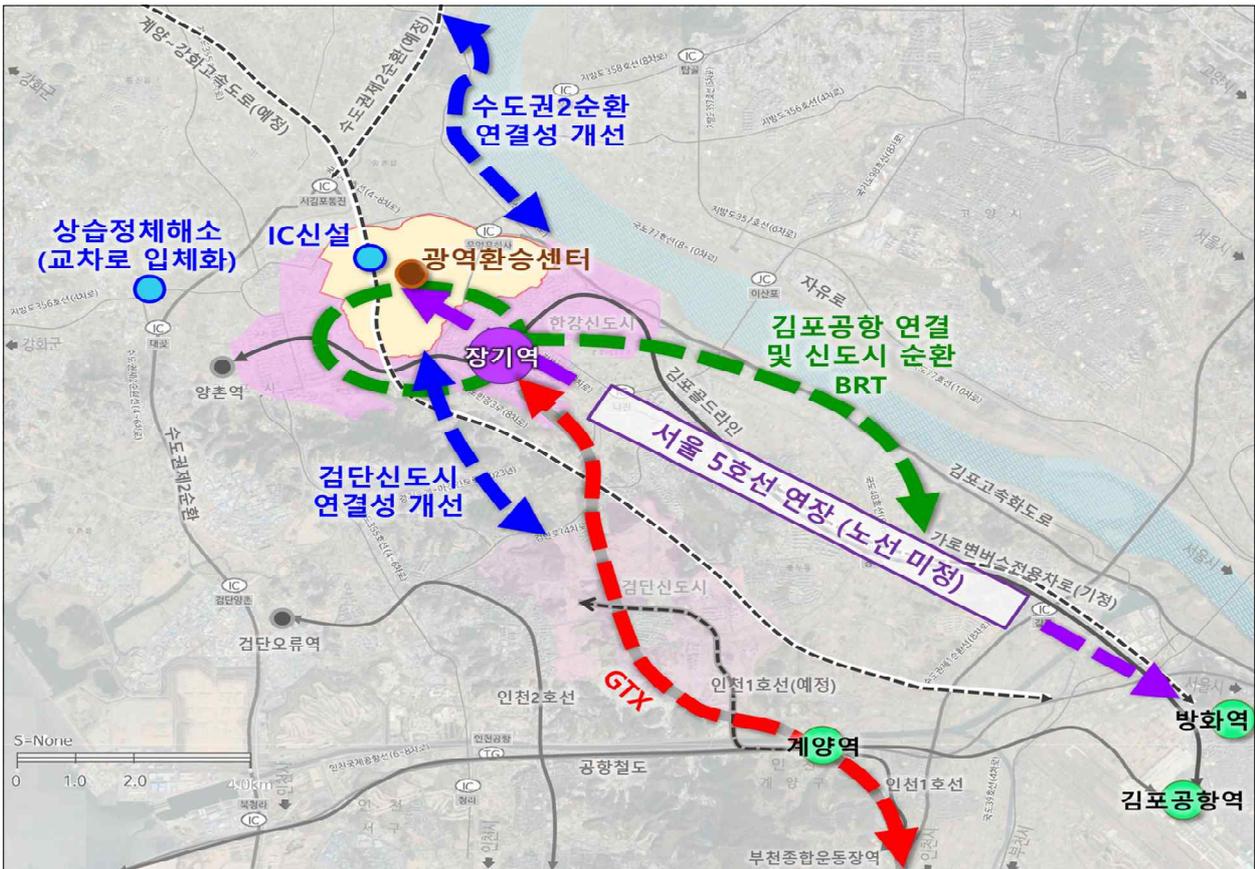
- 버스의 정시성 확보를 위해 개화역~김포공항 구간에 대해서도 버스 전용차로를 조속히 설치할 계획이다. 운영방식, 운영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광위 및 김포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대광위와 김포시는 21년부터 김포시~김포공항까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3단계로 설치하되 1~2단계 효과검증 후 서울시 구간인 3단계를 재논의키로 하였으나, 이후 우리 시에 협의해 온 바 없었다.

- 해당구간에는 고속도로 램프, 지하차도 등 입체교차시설이 연속적으로 위치하여 버스전용차로 설치시 버스와 일반차량 간 엇갈림이 발생할 수 있고,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설치시에는 교차로 주변, 이면도로 접속부, 건물 진출입구 주변 등에서 점선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혼잡도 완화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지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5호선 김포 검단 연장사업 적극 협력… 관계기관에 세부노선 확정 촉구>

- 서울시는 수도권 서북부의 광역교통망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방화차량기지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 ('22.11.11, 서울, 강서, 김포)을 체결하여 5호선 김포 검단 연장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 출처 22.11월 국토부 보도자료

- 현재 대광위는 김포시와 인천시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5호선 세부노선 확정을 위한 중재를 하고 있는바, 서울시는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광위 등 관계기관에 조속한 시일 내 세부노선이 확정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물길~육로 환승 없는 수륙양용버스 도입 추진〉

- 서울시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제안한 새로운 교통수단인 수륙양용버스 (40인승 이상) 도입도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적극 검토중에 있으며, 김포아라뱃길과 서울항을 연계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중이다.

〈수륙양용버스 예시〉



- 수륙양용버스는 김포를 출발하여 한강공원 선착장까지는 한강을 이용하고, 한강공원부터 인근 지하철역까지는 도로를 이용하여 환승 없이 직결로 운행 가능한 수단이다.
- 시는 관련 법제도 및 기반시설 검토 등을 거쳐 최적 노선을 선정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예상 운행 노선(안) 〉

- ▶ 단기 : 김포(한강신도시) - 고촌(입수) - 서울주요구간
- ▶ 중기 : 김포(한강신도시, 입수) - 백마도 통과 또는 신곡수중보 우회
- 한강 입수 - 서울주요구간
- ▶ 장기 : 김포(한강신도시, 입수) - 서울주요구간

- 오세훈 시장은 금일(4.14) 오전 김병수 김포시장과 혼잡도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통화를 나눴으며, “김포골드라인 혼잡 개선이 매우 시급한 만큼, 가동 가능한 모든 사항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며, “경기·인천 수도권은 하나의 생활권으로서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사업별 담당자

연번	부서명	담당자	분야	연락처
1	도시철도과 (도시철도운영팀)	(과장) 김지형	역사 관리 인력 투입	2133-4331
		(팀장) 곽동훈		2133-4330
		(담당) 강지훈		2133-4337
2	버스정책과 (노선팀)	(과장) 이진구	버스 증회 추진	2133-2260
		(팀장) 박흥식		2133-2281
		(담당) 이겨라		2133-2283
3	교통운영과 (BRT팀)	(과장) 김상신	버스전용차로	2133-2260
		(팀장) 한정환		2133-2471
		(담당) 조혜진		2133-2456
4	미래첨단교통과 (자율주행팀)	(과장) 이수진	수륙양용버스	2133-4950
		(팀장) 최종선		2133-4961
		(담당) 김진구		2133-4963